

본당 소식

2024년 6월 생활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한국 주교단 로마 사도좌 방문(Ad limina)

- 일시: 2024년 09월 16일~21일
- 사도좌 방문 후, 22일 주일에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과 장신호 요한 보스코 보좌 주교님께서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하십니다.
- 각 구역별로 견진성사 대상자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 모임 및 회의

- 청년성서 모임: 다음 주일(30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 계단,화장실: 정명용 미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01,40€ • 교무금 700,00€

전례 성가

입당 : 337 (미사시작)

봉헌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성체 : 156 (한말씀만 하소서), 344 (영성체)

파견 : 6 (찬미 노래 부르며)

전례 봉사

이번 주일(23일)	다음 주일(30일)
1독서: 정명용 미카엘	1독서: 서인복 리노
2독서: 정지원 글라라	2독서: 류정연 리파
복 사: 박동현 요한보스코, 안태오 마테오	복 사: 강윤이 스텔라, 변가인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용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6월 23일 (녹) 연중 제12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주님을 찬 송하 여 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 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 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

제1독서 (욘 38,1,8-11)

1 주님께서 욘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8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9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10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11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에 말이다.”

제2독서 (2코린 5,14-17)

형제 여러분,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5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17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4,35-41)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37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일깨워 주시어 성자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을 깊이 깨달아, 저희 민족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의 호소를 굽어살피시어, 정치 지도자들이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힘이 아닌 사랑이, 전쟁이 아닌 참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3.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전쟁으로 희생된 무고한 생명들, 특별히 6·25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을 기억하며 비오니, 그들이 하느님의 위로와 자비로 하느님 나라에 들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지켜 주시어, 저마다 주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 사회와 저희 민족, 나아가 온 세상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성체 후 기도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